



2면
당정, 5월 중 8개 시도 초중고
364만명 농산물 꾸러미 지급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중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왼쪽, 네 번째) 전북도지사과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고용노동부·전라북도 컨소시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위기 '일자리 안전벨트' 로 극복

고용부·道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협약 익산·김제·완주 컨소시엄, 유기적 협력 구체화 5년간 1000억원 지원, 새 일자리 1만개 창출 골자

군산발 고용충격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고용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전북도와 고용노동부의 초대형 고용안정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27일 고용노동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5년간 1000억원 지원,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3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송하진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사업참여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내빈소개, 송하진지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체결에 앞서 인사말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우리도는 군산 현대중공업과 한국 GM 공장 폐쇄로 고용상황이 악화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고용시장이 더욱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사업 선정은 현재의 고용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정부 및 참여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고용시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특단의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고 산업과 고용이 연계된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3월 고용률(15~64세)이 62.9%로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했고 취업자수(907천명) 역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0.3%로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해 '11년 1/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수출량은 올해 2월까지 1천대에도 못 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7년부터 시작된 군산 현대중공업 공장폐쇄 및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협력업체의 위기와 제조업 연쇄 도산으로 악화된 고용 현상이 미약하거나 마회복세를 보이던 외중 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악재까지 겹쳐 다시 침체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익산은 제조업 113개사가 연쇄 도산하고, 약 5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완주에 소재하는 상용차공장도 최근 5년간 생산대수가 2배 가량 감소하였고, 김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익산, 군산보다도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익산·김제·완주와 컨소시엄 구성협약을 맺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습체제의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와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를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사업의 한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지원, 창업지원, 인력양성, 고용환경개선, 고용서비스지원 등 새로운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체화 해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된 후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4차례에 걸친 컨설팅을 마치고 4. 21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개최됐다. 확정된 사업계획에는 ▲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 ▲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을 고도화하여 더좋은 일자리를 창출 ▲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신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000억원 투자, 안정적 일자리 10,000개 창출 목표를 담고 있어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상용차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춰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거래선 다각화·제품 다변화를 도모하고, 자동차 산업의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 산업으로의 전직을 지원하며, 미래 신기술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기자

전북도, 홀로그램산업 주도권

핵심기술개발 공모 최종 선정 4년간 국비 106.5억원 확보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0년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4개 과제 5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4년간 국비 106.5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은 지난해 6월 홀로그램 에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기술개발분야 15개 과제에 대해 공모해 이번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는 '고효율 상용차용 홀로그램 HUD(Head Up Display) 재현 기술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되어 지역 주도로 실시하게 된다.

전북도와 익산시의 기술개발과제 확보를 위한 도내·외 홀로그램 역량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 지난해 6월 홀로그램 에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였으나 전국 공모의 홀로그램 기술개발과제 확보는 관련 기업 등 지역 역량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학연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홀로그램 산업육성 전략 및 전북 주력산업과 연계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택하여 과제별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과제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홀로그램산업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홀로그램 전문기업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 간담회, 기업별 개별 투자상담

등 투자유치 활동으로 '20년 2월에 수도권 소재 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기업별 적합한 기술개발 과제의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실증(홀로그램 상용차, 가상박물관) 분야와 연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결과, 선정과제 모두 그 결과물이 전북에서 실증을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고효율 상용차용 홀로그램 HUD 재현 기술개발' 등 기술확보와 사업화 실증이 모두 지역에서 이루어져 주력산업 체질개선 등 지역 경제발전 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홀로그램 기술개발 과제는 4년 동안의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물을 창출하게 되고, 이 성과물은 시장 진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사업화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물들은 전북과 경북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며 전북은 상용차 HUD, 가상박물관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 실증을 하게 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실증이 기술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출에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되기 때문에 실증환경 조성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부터 실증분야에 대해 실증기이드라인, 품질표준 개발 등 실증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업별 실증수요를 조사해 맞춤형 실증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 실증분야와 연계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물이 전북에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진성 기자

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격차 해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과제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출석수업 곤란으로 인한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장애유형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및 수업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선화학교, 전주외화학교, 군산병화학교, 다솜학교, 한울학교, 동암초등학교, 전북맹아학교, 전북부흥학교, 전북해화학교 등 총 9개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및 태블릿 PC, 핸드폰 등 보유현황과 대여 가능한 보유대수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4월 13일 현재 전북지역 9개교의 중

3, 고3 학생들의 원격수업 유형과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학생수는 195명으로 온라인수업 활용 학생수는 128명(65.6%)이고, 온라인수업 불가 학생은 67명이다.

특수학교(급)은 적용기간을 거쳐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했다. 초등 1~3학년은 4월 20일 순차적으로 개학했으며,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은 일반유치원과 동일하게 등교기준 충족 시까지 휴업을 연장한 상태다.

온라인수업 참여 불가 학생 대체 원격수업 지원 유형은 *매주 학습자료 만들어 직접 및 우편배달, *주회 방문, *개별 학습지 제공 *교재 및 교구 대여, *대체 학습자료 제작 및 배부, *학습꾸러미 제공 *학부모 의견서 바탕으로 주1~2회 가정방문, *과제 수행중심 수업자료 제시 등이다.

/장은성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ch.224

ch.285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